

아이누 문화를 배워보자

~영화 「SONGS of KAMUI」와 함께~



차별 없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목표로

현재, 일본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누 민족은 일본 열도 북부 주변, 특히 홋카이도에서 독자적인 언어나 문화를 길러 온, 일본의 선주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나 문화에 대하여 국민적 이해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영화 ‘SONGS of KAMUI’를 통하여 아이누 민족 및 아이누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보다 깊이 알아가기 위한 ‘디지털 교재’입니다. 히가시카와정(町)과 (주)홋카이도 신문사가 연계한 아이누 상생 프로젝트 ‘School of SONGS of KAMUI’의 활동 중 하나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누 민족 및 아이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다양한 발전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차별 없는 다문화 공생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SONGS of KAMUI’에 대하여

영화 ‘SONGS of KAMUI’는 1903년 태어나 1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누 문화 전승자 지리 유키에 씨를 모델로 하여, 일본 선주민족인 아이누 민족과 문화의 우수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SONGS of KAMUI' 줄거리

아이누의 마음에는 카무이(신)이 깃들어 있다.

성적이 우수한 테루는 여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아이누라는 이유만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후 1917년, 아이누로서는 처음으로 여자직업학교에 입학했지만, 각종 멸칭으로 불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어느 날, 아이누어 연구의 권위자인 가네다 교수가 테루의 큰어머니 이누예마츠를 만나, 아이누의 서사시인 유카르를 듣기 위해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오게 된다. 이누마예츠의 유카르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가네다 교수가 말했다. “아이누 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당신들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란 말일세.” 교수의 말에 크게 감명받은 테루는 교수의 강력한 권유로 유카르를 문자로 남기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누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의 완성도가 훌륭했기에, 가네다 교수가 있는 도쿄로 와 본격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아이누 청년인 히사시와 큰어머니의 배웅으로 도쿄로 향하는 테루는 이 때, 다시는 홋카이도 땅을 밟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영상매체(DVD)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SONGS of KAMUI』의 영상매체를 학교 시설 및 이벤트홀, 공민관 등에서의 상영이 가능하신 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누의 풍부한 구전 문학을 후세에 남기는 위업을 이룬 아이누 민족 '지리 유키에'의 반평생을, 영화라는 친근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문의·신청은 「School of SONGS of KAMUI」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히가시카와정 관공서 문화교류과 TEL)0166-82-2111(대표)



[1] 교역과 아이누 문화의 형성

홋카이도에서는 약 1만 년~1만 2천 년 전이 조몬 시대, 약 1만 2천 년~1500년 전이 조쿠조몬 시대, 약 1500년~800년 전이 사츠몬 시대, 800년 정도 전부터 백 수십 년 전이 아이누 문화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13세기 이후, 홋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테아나식(땅을 조금씩 파내어 기둥을 세우고 초가를 얹는 형식) 주거가 평지 주거로 변했거나, 차시(울타리나 요새)를 구축하거나, 철로 만든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학문적으로 ‘아이누 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누 문화’는 13~19세기 전반, 아이누 민족이 와진(일본인)이나 사할린(가라후토) 사람들과 교역을 실시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형성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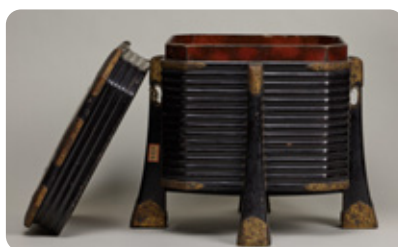
사츠몬 문화에서 아이누 문화로 변하면서 칼날이나 화살촉, 요리에 사용되는 냄비에 돌이나 흙이 아닌 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철기는 혼슈나 홋카이도 남부에 살던 ‘와진(일본인)’이라 불리던 사람들로부터 얻었습니다.

또한, 카무이노미(신을 향한 기도)와 같은 예식이나 일상생활에 사용된 ‘신토코’, ‘투키’, ‘이탄키’라고 불리는 옷칠 나무 그릇을 혼슈에서 구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와진(일본인)들로부터 무명 천과 쌀, 술, 담배, 바늘 등을 건내어 받았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혼슈나 대륙에서 물건을 구할 때, 홋카이도의 생산물과 교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나 매의 깃털, 바다표범의 모피는 혼슈에서 고급품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또한 곰과 사슴의 모피, 말린 연어, 다시마, 앓투시(나무껍질로 만든 천이나 옷) 등도 와진(일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누 민족과
마츠마에 번(藩)의 교역품
출처 / 홋카이도 박물관



교역품 및 노동의 대가로 받은 옷칠 나무 그릇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나무 섬유로 만든 옷 등도
와진(일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2] 음식

옛날 아이누 사람들의 음식은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산이나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계절마다 열리는 나무 열매나 산나물을,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으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산에서는 사슴, 불곰 같은 큰 동물이나 너구리, 에조 다람쥐,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강이나 호수에서는 연어, 송어, 시샤모(유업어) 등을 잡아서 산나물 등과 함께 끓여 국을 끓여 먹거나, 꼬치에 꽂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나물을 채취하여 식물에 따라 새싹, 줄기, 잎, 뿌리줄기, 열매 등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수렵과 낚시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었습니다. 아이누어에 조(粟)와 피(稗)를 뜻하는 명칭이 있는 점과 유적 발굴 조사 등을 통해 조몬 시대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곡류는 주로 죽으로 만들었지만, 제사나 의식을 치를 때 밥을 짓거나 경단 및 술의 원료로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냥이나 낚시, 채집, 농업으로 얻은 음식은 바로 먹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나 기근에 대비하여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산나물을, 가을에는 재배한 작물과 생선을 가공하여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누 사람들은 자연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혜를 발휘하여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자연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살았구나!

\\ 살펴보자! /

아이누 민족의 식사



라타스케

아이누어로 ‘라타스케’이란 ‘합치다’라는 뜻이 있어, 야채, 콩류를 삶아서 생선 및 동물 기름, 소금으로 간을 맞춘 요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먹었지만 의식이나 제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요리입니다. 출처/신히다카정 박물관



평소 식사 모습



출처/신히다카정 박물관

[3] 의복

아이누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용하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에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누의 ‘목면의’, 난티나무나 참피나무와 같은 나무의 껍질을 이용한 ‘수피(樹皮)옷’, 풀 섬유를 사용한 ‘초피(草皮)옷’ 등이 있습니다. 또한 ‘수피(獸皮) 옷’은 곰, 사슴, 담비와 같은 육지 동물이나 바다표범, 해달과 같은 해양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연어, 이토(일본연어)와 같은 물고기 가죽으로 이루어진 ‘어피(魚皮)옷’도 있으며, 다른 옷에 비해 소매가 얇고, 밑단이 넓어 서양의 원피스 같은 형태가 특징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입는 ‘일상복’과 특별한 의식이나 축하 행사 때 입는 ‘예복’이 있으며, 일상복은 심플하고 문양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예복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복은 아름다운 자수가 많이 놓여있어 매우 화려합니다. 지금도 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오래된 옷의 대부분은 예복입니다.



Pick Up Scene

일상복

영화에서는 일상복을 모델로 한 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치즈키 아유무 (히사시 역)

혼슈나 외국 등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옷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조 니시키라고 불리던 비단옷입니다. 중국 청나라 관리들의 옷이 사할린과의 교역을 통해서 홋카이도에 들어왔습니다. 와진(일본인)과의 교역으로 혼슈에서 들어온 것은 ‘우치카케(예복의 겹옷)’, ‘고소데(일상복)’, ‘일본 가면극 의상’, ‘진바오리(일상복 겹옷)’ 등이 있습니다. 외국이나 혼슈에서 들어온 의복은 모두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특별한 자리에서 정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앓투시(나무 껍질로 만든 천이나 옷) 위에 덧입었습니다.

\ 살펴보자!! /

아이누 민족의 의복

목화옷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수피(獸皮) 옷



출처 / 비라토리정 니부타니
 아이누 문화 박물관

어피(魚皮) 옷



출처 / 가야노 시게루
 니부타니 아이누 자료관

예복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외부(혼슈)에서 건너온
 진바오리(일상복 겹옷)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각각 언제
 입었을까?



[4]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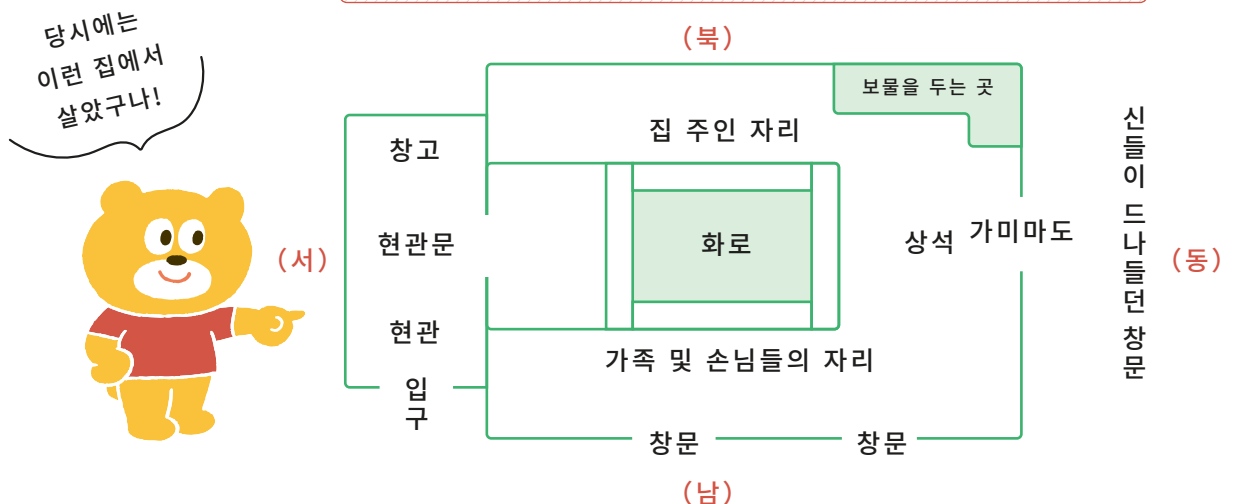
아이누 사람들은 식량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천 근처나 해안가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교통이 편하지만,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거처를 만들 때, 여러 채의 집을 모아 '코탄'이라고 불리는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으며, 코탄에는 많은 '치세(집)'를 지었습니다.

치세는 20㎡에서 100㎡ 정도의 넓이로,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코탄의 주민들이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밤나무, 떡갈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기둥을, 비자나무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뼈대나 지붕, 벽에 못을 사용하지 않고, 머루나무와 참피나무의 속껍질을 사용한 끈으로 연결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은 치세(집)

홋카이도 신히다카정에 있는 치세(집)의 방위와 평면도



입구 근처에 ‘화로’가 있습니다. 이 화로는 방을 데우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화로 주변은 가족이나 손님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방에는 ‘신들이 드나드는 창문’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귀하게 여기는 방향에 지어져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창문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창문과 가운데 화로 사이의 공간은 상석으로 귀하게 여겨져, 손님을 이쪽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치세 주위에는 ‘제단’이나 음식을 말리는 곳, 식량을 비축하는 ‘창고’, 새끼곰을 키우기 위한 ‘우리’, 남녀별 화장실과 빨래를 말리는 장대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Pick Up Scene

아이누 민족의 집 ‘치세’

테루와 히사시가 산 속 깊은 곳 눈이 많이 내리는 치세에 사는 할머니를 위해 장작을 나르는 장면. 당시 치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5] 신앙

아이누 사람들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물과 식물, 불이나 물과 같은 자연부터 배와 절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까지 다양한 것을 ‘카무이(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카무이는 자연이나 사물의 형태를 빌려 인간 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카무이노미

카무이노미는 ‘카무이(신)’, ‘노미(~에게 빌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신(카무이)에게 기도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아이누의 신앙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인간에게 자연의 혜택을 주는 것, 물과 물, 생활 도구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날씨나 전염병 같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등을 ‘카무이’로서 경외했습니다.



기도에 사용된 칼을 강에 바치는 아이누 사람들

Pick Up Scene



아이누 민족의 신앙에 대하여

마실 것을 바닥에 쏟았을 때, 이누에마츠가 상냥하게 “바닥의 신께서 목이 말랐나봐”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아이누 사람들이 여러가지 ‘카무이(신)’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 재해가 생명과 관련된 질병은 나쁜 카무이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카무이와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그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카무이는 인간 세계에서 제 역할을 다하면 언젠가 가족과 동료들이 기다리는 신들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때 아이누 사람들은 이나우(나무를 깎아 만든 아이누 민족의 공물), 술, 경단, 말린 연어 등을 제물로 바치며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카무이가 다시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진 카무이는 더욱 훌륭한 카무이가 되어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 중 대표적인 것이 이오만테(곰의 영혼을 돌려보내는 의식)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잡아 고기나 가죽을 얻는 것은 그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누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물의 몸에서 카무이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도 여겼습니다. 인간은 그 몸을 받아 카무이의 ‘영혼’을 카무이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그 카무이가 다시 동물의 모습을 빌려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생물뿐만 아니라 사용하던 도구가 낡거나 부서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행해졌습니다. 도구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곁들여 정성스럽게 신들의 세계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나우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이오만테에서의 곰 장식 재현

[6] 문 예

아이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키워온 문화 중 하나가 바로 ‘구전 문학’입니다. 구전문학은 문자로 적힌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것을 듣고 즐기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구전 문학에는 다양한 이야기 방식과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선율에 맞춰 노래하듯 풀어내고, 또 어떤 것은 일상적인 대화처럼 단조롭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크게 ‘영웅 서사시’, ‘신요’, ‘산문설화’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야기 전개 방식은 각각의 이야기에 맞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영웅 서사시 (유카르)

영웅의 이야기는 유카르 등으로 불리며, 짧은 운율을 반복하며 낭독합니다. 이야기꾼은 각자 자신만의 멜로디가 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익힌 이야기라도 본인의 운율을 활용하여 이야기합니다. 화자나 청중은 손에 나무 막대기를 쥐고 앉아 가까운 바닥이나 마루를 두드리며 리듬을 잡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청자, 때로는 이야기꾼이 전개에 맞춰 짧은 멘트를 넣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길며, 수십 분에서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 시간동안 이어지는 유카르도 있구나!

Pick Up Scene



유카르

화로 주변에 둘러 앉아 이누에마츠가 유카르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쥐고 앉아 가까운 지면이나 바닥을 두드리며 리듬을 잡고 있습니다.



신요 (카무이유카르)

신들의 이야기는 카무이유카르 등으로 불리며, 짧은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이야기에 말을 엮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대략 정해진 멜로디가 있습니다. 또한 낭독할 때 ‘사케헤’라는 반복적인 말을 사이에 두고 절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동물이나 식물의 카무이, 번개나 질병과 관련된 카무이 등, 다양한 카무이가 카무이의 세계나 인간 세계에서 경험한 자신의 모습을 풀어내는 것이 많습니다.

카무이유카르는 여성 아이누 지리 유키에가 적은 ‘아이누 신요집’이 특히나 유명합니다.

산문설화 (우에페케르)

산문설화(옛이야기나 전설)는 일상적인 대화에 가까운 말투, 혹은 그보다 다소 단조로운 말투, 반대로 다소 큰 억양을 가미하는 말투 등으로 풀어냅니다. 등장인물도 인간, 카무이, 동물, 도구 등 다양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인간이 주인공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카무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카무이가 자신의 체험을 풀어내는 것, 내용적으로는 신요에 가까운 것, 영웅 서사시처럼 인간에게는 없는 힘을 가진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카무이유카르

이누에마츠와 테루가 가네다 교수에게 카무이유카르를 불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무이유카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7] 카무이민타르

다이세츠산 연봉(連峰)



출처 / 히가시카와 관광협회

다이세츠산 연봉은 가미카와 아이누들이 ‘누탐카무이시르(강이 굽은 상류에 위치한 신의 산)’, ‘누탐카우시페 (넓은 습지 위에 붙은 것)’ 고 부르며 숭배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비로운 산세와 고산식물의 군락지 등은 ‘카무이민타르(신들이 뛰노는정원)’이라고 불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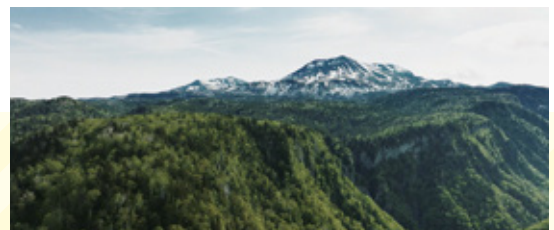
해발 2,291미터를 자랑하는 홋카이도 최고봉 아사히다케 기슭에 있는 아사히다케 온천에서는 60년 이상에 걸쳐, ‘누푸리코르 카무이노미’라고 불리는 아이누의 제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Pick Up Scene



아사히다케

영화 오프닝이나 테루가 무쿠리 (아이누 민족의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 등,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에서 아사히다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누푸리코르카무이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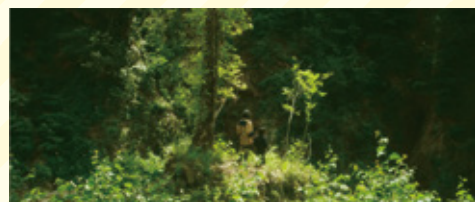


누푸리코르카무이노미란, 아사히다케의 등산 허가를 맞아 등산객의 안전을 기원하는
기원제로, 아이누어로 '산의 신에게 기도하는 산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아이누의 전통 의식,
고대 무용, 대형 모닥불과 일반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횃불 행진도 진행됩니다.

누푸리코르카무이노미는 아사히다케 청소년 야영장을 행사장으로 하여 엄숙한 아이누 예식을
시작으로, 전통 춤과 노래 공연이 끝난 뒤 관람객과 함께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모닥불을 피우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환상적인 축제입니다.

카무이민타르

영화에서는 아사히다케를 시작으로,
웅대한 카무이민타르 (신들이 뛰노는
정원)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유산

‘카무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미카와 아이누’

— ◆ 구성문화재 ◆ —

구성문화재 →
상세는 이쪽



카무이로 살아가다



1 아이누 고대식 무용

신의 마을 ‘카무이 코탄’



2 카무이 코탄
~마신과 영웅신의 격전~



3 카무이노미

신의 마을 ‘카무이 코탄’



4 이시카리 강

가미카와 아이누 성지 ‘치노미시르’ 아라시야마



5 아사히야마 ~치노미시르~



6 치캡운이

가미카와 아이누 성지 ‘치노미시르’ 아라시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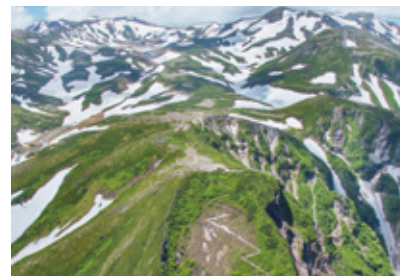


7 치노미시르 • 카무이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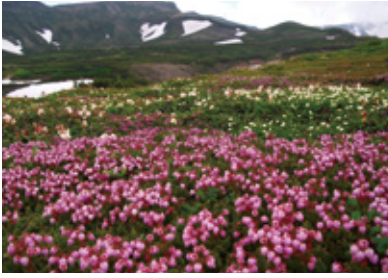
8 치세(집)

신들이 뛰노는 정원 ‘카무이민타르’ 다이세츠산



9 다이세츠산 ~카무이민타르~

신들이 뛰노는 정원 '카무이민타르' 다이세츠산



10 고산식물 ~고마쿠사 등~



11 고산지대 나비



12 누푸리코르카무이노미

신들이 뛰노는 정원 '카무이민타르' 다이세츠산



13 올빼미를 위한 제사



14 위대한 선조를 기리는 의식



15 목조 기술 (목각 곰)

카무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카무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16 카네무라 카네토 아이누 기념관



17 아사히카와시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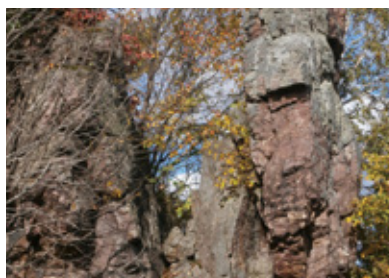


18 톯쇼산

카무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19 이시가키 산
(산의 신, 아이누의 고대 전투장)



20 다테이와 · 히토쿠이카타나이와



21 스이신류오 신사

[8] 지리 유키에에 대하여

지리 유키에는 1903년, 지금의 홋카이도 노보리베츠 혼마치 2초메, 누푸르펫(노보리베츠 강) 근처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다카키치는 지리 가문, 어머니 나미는 간나리 가문 출신 아이누입니다. 6살 무렵 아사히카와로 이주한 뒤, 19살까지 어머니의 여동생인 간나리 마츠, 할머니 모나스노우크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유키에는 아이누의 이야기를 최초로 문자화한 ‘아이누 신요집’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3편의 카무이유카르(신요)가 수록된 신요집의 아이누어 표기, 대역, 서문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1922년 5월 유키에는 도쿄로 이주하지만, 심장병으로 인해 같은 해 9월 18일 1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누로서의 민족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누의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사명을 다한 유키에는, 사후에도 저서와 그 속에 담긴 정신으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리 유키에

Pick Up Scene



기타자토 테루에 대하여

영화 ‘SONGS of KAMUI’의 주인공 ‘기타자토 테루’는 지리 유키에를 모델로 한 여성 아이누입니다. 영화를 통해 지리 유키에의 인물상과 당시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다 미츠키(테루 역)

지리 유키에의 역사

- 1903 ● 6월 8일, 홋카이도 노보리베츠에서 태어남
- 1907 ● 다카나카(남동생)가 태어남
할머니 모나스노우크와 함께 살기 시작함(4세)
- 1909 ● 마시호(남동생)가 태어남, 간나리 마츠에게 맡겨짐(6세)
- 1910 ● 가미카와 제3진조소학교 입학(7세)
- 1916 ● 가미카와 제5진조소학교 졸업(13세)
- 1917 ● 아사히카와구립 여자직업학교 입학(14세)
- 1918 ● 긴다이치 교스케와의 만남(15세)
- 1920 ● 아사히카와구립 여자직업학교 졸업(17세)
- 1921 ● 아이누 전설집 노트를 긴다이치에게 보냄(18세)
- 1922 ● 5월, 긴다이치 교스케 자택에서 기거
9월 18일 '아이누 신요집' 최종교정 완료
그날 밤, 심장마비로 돌연사, 향년 19세
- 1923 ● 8월 '아이누 신요집' 간행
- 1961 ● 간나리 마츠, 남동생 마시호, 아버지 다카키치 사망
- 1971 ● 긴다이치 교스케 사망
- 1973 ● 후지모토 히데오가 저술한 유키에의 평전 '긴노시즈쿠 후루후루' 발행
- 1978 ● '아이누 신요집' 에스페란토어로 번역 후 발행
이와나미 문고본 중 한 권에 '아이누 신요집'이 수록
- 2003 ● 탄생 100주년, 전국순회전 '지리 유키에... 자유의 천지를 찾아서' 도쿠시마 시, 가나자와 시, 도쿄 도에서 개최
홋카이도 노보리베츠 시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 '지리 유키에의 100년, 은방울이 떨어지는 고향으로' 개최
- 2008 ● NHK '그 때 역사가 움직였다'에서 지리 유키에가 거론
- 2010 ● '지리 유키에의 공책'이 홋카이도 지정 유형 문화재로 지정
'지리 유키에 긴노시즈쿠 기념관' 개관
- 2022 ● 사후 100년을 맞이함



▲ 지리 유키에의 어린 시절



▲ 지리 유키에(좌)와 간나리 마츠(우)



◀ 지리 유키에의 작품(4학년)



▲ 직업학교 수업풍경



▲ 직업학교 졸업증서



▲ 지리 유키에의 공책(복각본)

[9] 간나리 마츠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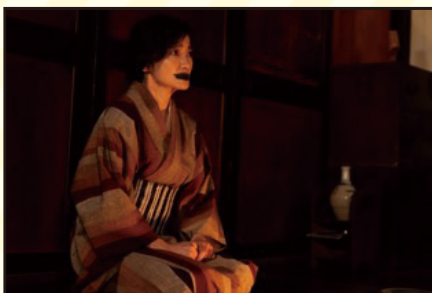
간나리 마츠는 1875년 호로베츠 코탄(현 호로베츠 시) 출신인 여성 아이누입니다. 아이누 이름은 이메카누, 세레명은 마리아입니다. 긴다이치 교스케에게 ‘위대한 유카르쿠르(서사시의 이야기꾼)’이라고 불리던 모나스노우크의 딸로, 유키에의 이모입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의 부상으로 다리가 불편해져, 1892년부터 선교사 존 첼러의 도움으로 하코다테 모토마치에 개교한 아이린 학교에 입학합니다.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일본어 읽기, 쓰기, 산수, 체조와 로마자를 활용한 아이누어 표기 및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후, 크리스티교의 선교사가 되어 비라토리 코탄에서 12년 동안, 아사히카와 정(현 아사히카와 시) 지카부미 코탄에서 약 20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합니다. 지카부미 성공회 일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한편, 여성들에게는 바느질과 뜨개질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모나스노우크는 지카부미에서 발이 불편한 간나리 마츠를 위해 함께 살았고, 거기에 지리 유키에(당시 6세)를 데려와 19세까지 키웠습니다. 포교 활동을 그만둔 후에는 고향 노보리베츠에 돌아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유카르’ 등을 아이린 학교에서 배운 로마자로 기록하고, 긴다이치 교스케 및 조카 지리 마시호와 함께 무려 160권이나 되는 공책을 남겼습니다. 그 일부는 1958년, 간나리 마츠가 기록하고 긴다이치 교스케가 엮어내어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집’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간나리 마츠의 업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맥을 이어받아 현재 홋카이도 교육위원회에 의해 공익사단법인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의 협력 하에 유카르 시리즈로 번역 후 발행되고 있습니다. 1956년에 자수포장(학술 및 스포츠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수상 후, 1961년에 작고했으며, 향년 85세였습니다.



간나리 마츠

Pick Up Scene



시마다 카호(이누에마츠 역)

Point

영화에서는 이누에마츠의 입 주변이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신입니다. 아이누 민족의 여성은 성인이 된 증거로 입 주위를 검게 문신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누에마츠에 대하여

영화 속에서 간나리 마츠를 모델로 한 이누에마츠의 아름다운 유카르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 긴다이치 교스케에 대하여

긴다이치 교스케(1882년, 이와테 현 출신)는 일본의 언어학자, 민속학자이며 일본의 아이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 제국 대학 시절, 스승인 우에다 가즈토시로부터 “아이누는 일본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누어 연구는 일본 학자들의 세계에 대한 책임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누어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후에 홋카이도로 넘어와 아이누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현지를 조사하던 중, 아이누 민족에게 전해지는 서사시 유카르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긴다이치 교스케
출처 / 국립국회도서관

1918년 여름, 아이누 문화 및 언어 조사로 홋카이도를 방문하던 긴다이치는 간나리 마츠와 모나스노우크를 찾아갑니다. 그 때 지리 유키에를 처음 만났고, 곧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긴다이치는 ‘카무이 유카르’를 기록한 책을 출판하기를 권유합니다. 긴다이치의 공적 중 하나는 아이누어의 체계적인 문법 연구를 실시하여, 그때까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던 아이누어를 문자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간나리 마츠와 지리 유키에와의 교류를 통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이누의 서사시 유카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리 유키에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의지를 이어받아, 아이누 문화의 소멸을 막기 위해 유카르 및 그 외 아이누 문화를 정리하고 번역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아이누 서사시 유카르집’은 아이누 문화의 귀중한 기록으로서 후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누어 음성과 문법의 상세한 기록을 남겨 아이누어를 일본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71년에 작고했으며, 향년 89세였습니다.



가토 마사야(가네다 교수 역)

가네다 교수에 대하여

홋카이도에서 테루와 만났을 때, 곧바로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가네다 교수는 ‘카무이유카르’를 기록한 책을 출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영화에서는 아이누어나 아이누 문화를 후세에 이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홋카이도 개척과 아이누 민족

홋카이도는 원래 아이누 사람들이 드넓은 자연과 공생하던 지역이었습니다. 1869년, 일본 정부는 아이누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그 섬을 ‘홋카이도’라고 명명하고, 아이누 민족을 일본 국민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홋카이도를 ‘국토’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시림은 황폐해지고, 마을 및 도로, 항구가 생기며 기차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척’으로 인해 아이누 민족은 ‘구토인(旧土人, 미개한 토착민)’과 같은 멸칭으로 불리며,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됩니다.

[2] 동화정책과 그 영향

아이누 사람들은 살던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풍습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아이누어 사용 금지, 일본식 이름으로의 강제 개명, 문신이나 귀걸이 금지, 심지어 언어잡이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이누 민족을 일본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동화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3]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

1899년, 정부는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을 제정하여 아이누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재촉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토지가 주어졌지만 농업에 적절하지 않은 땅이 많았으며, 충분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누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Pick Up Scene

지리 유키에의 ‘아이누 신요집’은 이 시기에 출판되었습니다. 영화 ‘SONGS of KAMUI’는 이러한 시대상을 그려냈습니다.



[4]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 설립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46년, 홋카이도에 사는 아이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협회는 아이누 민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이어갔고, 1961년에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09년에는 다시 한번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라고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협회는 아이누어나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생활 지원,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선주민족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에도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아이누 문화 진흥법과 아이누 시책 추진법

1980년대, 세계의 선주민족이 국제연합을 만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선주민족의 토지와
자원을 되찾을 것

2

예로부터 지켜온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

3

정치의 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얻는 것

아이누 민족 또한 선주민족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공유하고, 일본의 ‘일본에는 예전부터 와진(일본인) 밖에 없었다’는 단일민족론에 대해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97년, ②의 ‘문화 진흥’과 관련된 부분이 ‘아이누 문화 진흥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아이누 문화 진흥법

1997년에 성립된 이 법률은 아이누 민족이 일본의 소수민족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정식 명칭은 ‘아이누 문화의 진흥,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때 멸종의 우려가 있던 아이누 민족의 언어 및 문화의 보존과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문화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주민으로서의 권리나 생활 보장은 다루지 않았다는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이누 시책 추진법 (아이누신법)

2019년 5월, 아이누 민족을 법률상 처음으로 ‘선주민족’이라 명시한 ‘아이누 시책 추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이누 사람들의 자긍심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는 아이누 사람들의 자립 지원과 지역 진흥,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이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것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모든 국민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

MEMO

.....

.....

.....

.....

.....

.....

.....

.....

.....

.....

.....

.....

.....

.....

.....

.....



[6]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일본에는 서로 다른 언어나 문화, 풍습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도 그 일원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의식과 행사를, 지역과 가정마다 행하며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홋카이도 개척과 국가의 동화정책으로 인해 언어와 문화가 계승되지 않아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아이누어도 쇠퇴하여 현재는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아이누 사람들이 문화와 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아이누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동참하면서 활동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언어의 소멸은 그 언어가 가진 고유한 세계관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아이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아이누 사람들이 문화와 의식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고, 아이누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에 동참하며 활동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 부흥과 교류 확대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누어 교실'을 비롯해 민족 의상, 악기, 요리, 목공예품 만들기 등 아이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아이누의 집과 배, 의상 등을 복원하고 전통적인 언어잡이와 사슴 사냥을 재현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러한 활동은 아이누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누 문화는 지금,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 춤과 음악, 미술 작품을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누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누 요리와 문양을 도입한 디자인이 일상 생활에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누 문화 진흥법’이나 ‘아이누 시책 추진법’의 제정에 의해, 학교나 지역에서도 아이누 문화가 보다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의 보존이나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누어와 전통 춤, 노래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누어 교실

제공 / 비라토리 정 니부타니 아이누어 교실 어린이부



아이누 문화 체험

출처 / 카네무라 카네토 아이누 기념관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오랜 역사 속에서 아이누 문화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문화를 지켜온 아이누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이좋게 어울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아이누 민족의 목공품

출처 / ColBase (<https://colbase.nich.go.jp>)



아이누 문화 체험 교실에서 만든 작품

출처 / 카네무라 카네토 아이누 기념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아이누 문화와 정신

모든 것을 소중히,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아이누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카무이(신)’으로서 존중하며 자연과의 공생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 산나물을 채취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캐지 않고 다음에 자랄 수 있는 양을 남겨두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도구는 가까이에 있는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 역시 카무이가 변신한 것으로 여겨 소중히 다뤘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물건에 대한 존중은 현대 사회의 대량 소비 문화와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아이누 문화의 정신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아이누 사람들에게 있어 동료끼리 서로 돕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렵, 낚시, 집 짓기 등은 마을 전체가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 정신은 ‘우레스파(서로를 돕는 것)’라고 하는 아이누어 단어에도 두드러져 보입니다. 아이들은 ‘마을의 보물’로 사랑받으며 자랐고, 어른들은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또, 마을을 인솔하는 ‘촌장’은 용변이 뛰어나고(파웨톡), 용기를 지니고(시레톡), 손재주가 좋은(테케톡) 사람이 선정되어 공동체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중과 협력의 정신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관대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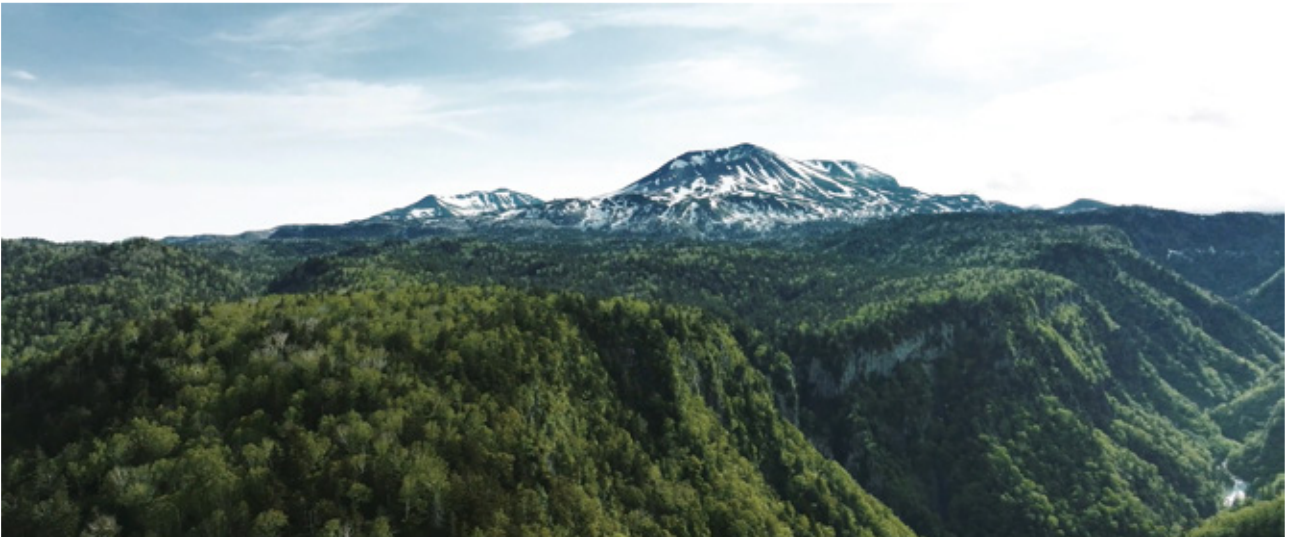
아이누 사람들은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며 교역과 교류를 통해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삶의 기반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우선이며, 힘이나 전쟁에 의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대화 중시 태도는 현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유익한 시사점을 줍니다.

[7] 아이누 문화의 정신을 되살리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약화, 자연 환경 파괴, 전쟁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이누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대화를 중시하는 아이누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누 문화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식으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아이누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아 이 누 민 족 의
역 사 와 문 화 를
알 수 있 어 !



지리 유키에 씨가 후세에 남긴 책

영화 개봉 기념 만화책 발매중!



‘지리 유키에 아이누 신요집’

나카가와 히로시 개정 이와나미 문고

‘먼 옛날, 드넓은 홋카이도는 우리 조상들이 자유롭게 살던 땅이었습니다.’ 아이누 민족이 자랑하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 편. 아이누 조상들이 남겨준 것을 후세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누를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아가는 세상에 항거하고, 또래의 희망을 가슴에 품은 지리 유키에 (1903-1972)가 간직한 보물 같은 카무이 유카루.



‘SONGS of KAMUI’

만화: 나카하라 카제 원작: 스가와라 히로

빅코믹 상에서 가작을 받은 만화가
의해서 만화로 재탄생. 아이누 민
유카르라는 서사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후세에 남긴 지리 유키에를 모델로 하
일생을 그려냈습니다. 또, 영화에는 등장
아이누건 아도의 활약도 만화의 매력입니



각 지역에서
의 역사를
수 있어!

로시
나카하라 카제에
족의 계승문학인
'아이누 신요집'을
여, 그녀의 장렬한
강하지 않는 캐릭터,
니다.

01 홋카이도 아이누 종합 센터 7th Floor, Kaderu 2-7 Building, Kita 2 Nishi 7,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2 	02 홋카이도 박물관 53-2 Konopporo, Atsubetsu-cho, Atsubetsu-ku, Sapporo, Hokkaido 004-0006 
03 삿포로시 아이누 문화교류센터 (삿포로 피르카 코탄) 27 Koganeyu, Minami-ku, Sapporo, Hokkaido 061-2274 	04 도마코마이시 미술박물관 3-9-7 Suehiro-cho, Tomakomai, Hokkaido 053-0011 
05 유카르의 마을 아이누 생활자료관 (노보리베츠 곰목장 내) 224 Noboribetsu Onsen-cho, Noboribetsu, Hokkaido 059-0551 	06 우포포이 (민족공생 상징공간) 2-3 Wakakusa-cho, Shiraoi Town, Shiraoi District, Hokkaido 059-0902 
07 지리 유키에 긴노시즈쿠 기념관 2-34-7 Noboribetsu Honcho, Noboribetsu, Hokkaido 059-0465 	08 야쿠모 정 향도자료관·목각곰 자료관 154 Suehirocho, Yakumo-cho, Futami-gun, Hokkaido 049-3112 
09 하코다테시 북방민족 자료관 21-7 Suehirocho, Hakodate, Hokkaido 040-0053 	10 비라토리정립 니부타니 아이누 문화 박물관 55 Nibutani, Biratori-cho, Saru-gun, Hokkaido 055-0101 
11 니부타니 공예관 61-6 Nibutani, Biratori-cho Saru-gun, Hokkaido 055- 0101 	12 사루가와 역사관 227-2 Nibutani, Biratori-cho Saru-gun, Hokkaido 055- 0101 
13 아사히카와시 박물관 Asahikawa City Taisetsu Crystal Hall, Kagura 3-jo 7-chome, Asahikawa City, Hokkaido 070-8003 	14 카와무라 카네토 아이누 기념관 11-chome, Hokumoncho, Asahikawa, Hokkaido 070-0825 
15 나요로시 기타쿠니박물관 222 Midorioka, Nayoro, Hokkaido 096-0063 	16 오호츠크 뮤지엄 에사시 1614-1 Mikasacho, Esashicho, Esashigun, Hokkaido 098-5823 
17 오비히로 백년기념관 2 Midorigaoka, Obihiro, Hokkaido 080-0846 	18 아이누 문화활동시설 우레시파 치세 Higashi 3-jo Kita 1-chome 2-27, Shiranuka-cho, Shiranuka-gun, Hokkaido 088- 0333 
19 구시로시립 박물관 1-7 Shunkodai, Kushiro, Hokkaido 085- 0822 	20 아칸 호 아이누 시어터 이코르 4-7-84 Akanko Onsen, Akan-cho, Kushiro, Hokkaido 085-0467 
21 아바시리시립 향토박물관 1-1-3 Katsuramachi, Abashiri, Hokkaido 093-0041 	22 카가 가문 문서관 29 Miyamaicho, Betsukaicho, Notsukegun, Hokkaido 086- 0201 

영화 ‘SONGS of KAMUI’

아이누 공생 프로젝트 ‘School of SONGS of KAMUI’ 에 담은 소망

홋카이도에는 언어, 종교, 문화에 있어 독자성을 지닌 원주민인 아이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누어는 문자가 없어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리 유키에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누어’를 문자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영화 ‘SONGS of KAMUI’는 다이세츠산의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지리 유키에 씨의 반평생을 모델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아이누 민족이 이어온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아이누 민족이 살아온 풍요로운 자연과 열악한 사회적 환경을 그려냄으로써 문화와 가치관의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와 프로젝트가 차별과 박해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에도 존재하는 ‘괴롭힘’, ‘차별’, ‘분쟁’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사람들이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 ‘SONGS of KAMUI’

[CAST]

요시다 미유키 (기타자토 테루 역) 모치즈키 아유무 (히사시 역)
시마다 카호 (이누마에츠 역) 시미즈 미사 (가네다 시즈 역)
가토 마사야 (가네다 교수 역)

[CREDIT]

감독·각본: 스가와라 히로시
프로듀서: 사쿠마 키요코
제작: 시네보이스
제작협력: 사진문화수도 ‘사진의 마을’ 홋카이도 히가시카와



히가시카와 × 홋카이도 신문사

아이누 공생 프로젝트 ‘School of SONGS of KAMUI’

[사진 제공]

홋카이도 박물관 / 공익재단 아이누민족문화재단 / 비라토리정 니부타니
아이누문화박물관 / 신히다카정 아이누 민속 자료관 / 도쿄국립박물관 /
일반사단법인 히가시카와관광협회 / 다이세츠산 산로쿠 가미카와
아이누일본유산추진협의회 / 일반사단법인 카와무라 카네토 아이누 기념관 /
시네보이스 / 오오츠카 유키오 (순서 부동)

[글]

홋카이도 신문사 아사히카와 지사 영업부

[감수]

지리 유키에 긴노시즈쿠 기념관

2024 년 12 월 발 행

디지털 교재 감수

긴노시즈쿠 기념관

홈페이지 접속 ▶



이 곳은 홋카이도 노보리베츠. 아이누어로 누푸르·펫 (강물 색이 짙은 하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태어난 아이누 소녀 지리 유키에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그녀를 통해 아이누 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이 본기념관의 역할입니다.

이 기념관은 모두 일반인들의 모금으로 건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시작된 모금 활동은 총 2500명 이상의 마음을 모아 2010년 가을, '지리 유키에 긴노시즈쿠 기념관'으로 탄생했습니다.

INFORMATION

■주소: 〒059-0465 2-34-7 Noboribetsuhonchō, Noboribetsu, Hokkaido ■TEL/FAX: 0143-83-5666

■Mail: ginnoshizuku@carrot.ocn.ne.jp ■개관시간: 9:30am ~ 4:30pm (입장은 4:00pm까지)

■휴관일: 화요일(공휴일 제외)・일요일(단체・투어의 경우 사전 예약 필요) 동절기 휴관 (12월 20일 ~ 2월)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에 대하여

홋카이도 한 가운데에 위치하였으며, 홋카이도 최고봉 아사히다케(2,291m)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 인구 약 8500여 명 정도의 자연이 풍부한 마을입니다. '히가시카와'는 아이누어로 चुп(Chup)을 의역한 것으로, '수원이 동쪽에 있는, 해와 달이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주요 산업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 목공업, 관광업입니다. 다이세츠산에서 흐르는 복류수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드물게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산지대의 수려한 식물, 알록달록한 단풍, 고운 눈 등이 특징입니다. 등산을 비롯한 다양한 액티비티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사진의 마을을 선언하여 '사진으로 담기 좋은 마을'을 목표로 하여 사진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류를 추진하는 등,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5대 가구 중 하나인 아사히카와 가구의 산지이기도 하며, 일본 최초의 공립 일본어 학교를 개설하여 일본어를 배우는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등, 국제교류가 활발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